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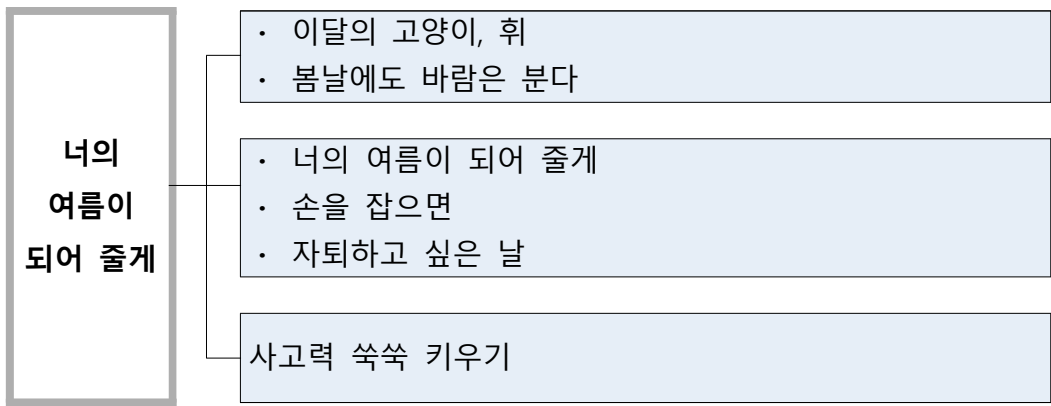
너의 여름이 되어 줄게

- * 글 : 김근혜, 김영주, 박지숙, 서성자, 전은희
- * 펴낸곳 : 단비청소년 * 정가 : 13,000원
- * 분량 : 200쪽 * 대상 : 청소년

· 책 소개

《너의 여름이 되어 줄게》는 요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인 '돈, 열등감, 사랑, 폭력, 입시'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다섯 명의 작가가 풀어낸 앤솔로지 소설집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앞에서 작가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기를, 자신의 약점에서 강점도 발견해 주기를, 맘껏 사랑하기를, 위기에 처했을 때 손 내밀 용기를 갖게 되길,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글로 담아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한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늘도 이런저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책이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1. 이 책의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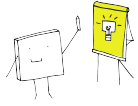
2. 『너의 여름이 되어 줄게』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내 안에 내게 어떤 꿈을 꾸는지,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늘 물어야 해.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나올 수 있게 나를 격려해 줘. 비뚤어진 자리에서 끌어내는 건 바로 나여야 해. 나를 지키는 건 나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돈, 열등감, 사랑, 폭력, 입시'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 답을 당장 찾지 못하더라도 당당히 맞서 고민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꿈틀거릴 힘이 되어 주는 다섯 이야기

1) 잘못된 길에 들어섰거나 비뚤어진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2) ㉠의 이유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치지 않고 맞서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독서 후 ① 이달의 고양이, 휘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와 문을 잠갔다.

.....

마우스를 왼 손이 떨리는 바람에 숫자 몇 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의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엄마 핸드폰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현실로 최강 무기와 장비를 샀다.

(나) 짠순이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세월이 허무했다. 오백 원 하나도 그냥 주는 법이 없는 엄마가 데이터 요금으로 백만 원이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마구 쓰고 살걸. 후회됐다.

"너, 나 똑바로 봐 봐."

엄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순간 직감했다. 데이터 요금의 실체를. 올 것이 오고 만 것이다.

(다) "하여튼 난 이 돈 못 갚아. 네가 갚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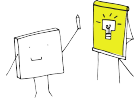
엄마가 나를 뚫어져라 봤다. 나는 엄마 눈을 일부러 안 피했다. 그깟 돈이 뭐가 중하다고 만날 돈, 돈 하는지. 내가 왜 현실을 했는지 이유도 묻지 않은 채 말이다.

"그까짓 돈, 갚으면 되잖아."

내 입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다. 이건 생각하지 않은 시나리오다. 한 달 전, 나는 현실을 앞두고 엄마에게 들켰을 때를 대비해 나름의 대책을 세웠다. 1안은 무조건 싹싹 빈다. 빌고 또 빌면 용서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다. 2안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성적을 올리겠다고 약속하는 거다. 성적에 목말라하는 엄마에게 직방으로 통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계획에 없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돈을 갚다니. 무슨 수로 어떻게? 너 미친 거 아냐? ㉠접시 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1. (가)~(다)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휘와 엄마에게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지 써 보세요.

2. ㉠접시 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은 어떤 심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독서 후 ② 이달의 고양이, 휘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가 말했지. 돈 버는 의미를 생각하라고. 넌 지금 백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으면 백만 원은커녕 당장 잘릴걸!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라고.”

(나)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해 보자. 한 달이다. 한 달 후에 엄마에게 당당하게 돈 백만 원을 멋지게 건네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꼭 친 주먹에 저절로 힘이 잔뜩 들어갔다. 난 눈을 감고 고양이가 되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팔과 다리를 흔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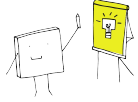
(다) 현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고양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말인즉슨 돈 벌고 싶으면 열 받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고 여자들에게 광고지를 나눠 주며 엉덩이춤을 선사했다. 여자들은 응답이라도 하듯 손가락 총을 쏘다. 언젠가 엄마가 그랬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고.

(라) 돈을 번다는 건 이러한 부조리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견디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문득 엄마가 생각났다.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는데 믿을 건 돈밖에 없었던 엄마 말이 살짝 이해되는 시점이었다. 엄마에게 돈이란 타인의 굶지 않은 시선과 환경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었겠지. 돈이라는 걸 벌어서 보니 엄마의 지독한 돈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1. 고양이 탈을 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휘는 돈 버는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2. 아르바이트를 하고 난 후 엄마의 돈 사랑에 대해 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아르바이트 전	아르바이트 후



독서 후 ③ 봄날에도 바람은 분다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페트병 같았다.
- 선우 선생님의 어깨는 ㉡녹록해진 김처럼 처졌다.

(나) “결석 처리 안 할 거죠?”

선우 선생님은 대꾸하지 않았고 때마침 종이 울렸다. 준서는 일부러 교탁 앞에 우뚝 서더니 끝끝내 한마디 더 던졌다.

“결석 처리했담 봐요. 교육청에 바로 고소할 테니까, 쌤은 10분도 수업 안 했잖아요. 수업 도중에 나갔다 오고.....”

선우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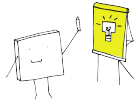
“매번 적반하장이란 생각은 하지 않니?”

1. (가)의 ㉠과 ㉡의 문장을 각각 넣어 새로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	㉡

2. (나)의 밑줄 친 사자성어 적반하장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남의 것을 빼앗고 행패를 부린다.
- ② 잘못된 사람이 되려 다른 사람을 나무란다.
- ③ 일이나 행동을 지체없이 빨리하기를 재촉한다.
- ④ 몹시 마음을 쓰고 애를 태운다.
- ⑤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다.



독서 후 ③ 봄날에도 바람은 분다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쌤, 아니고요. 제빵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빠르게 붙어진 준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뉴욕제과에서 일할 수 없다고요. 싫어요, 진짜! 쌤.”

(나) “왜 내게 올 생각을 했니?”

“저번에 분리수거장에서 쌤이었죠? 도망치는데 저를 잡으러 오지 않는 쌤이 묘했어요. 웃음이 나오다 점점 난 이렇게 살다 뭐가 될까 싶었어요. 중학교 때 애들이 비웃는 학교를 내 자신조차 절실해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고모가 아무리 기다려도 저는 그 길로 갈 수 없을 거고... 그럼 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막막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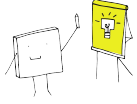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기특하네.”

“네?”

준서는 한심한 자신을 늘어놓았을 뿐인데, 의외의 말에 뻘히 선생님을 바라봤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찾기 시작했단 말이야.”

1.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준서는 선우 선생님을 왜 찾아간 것일까요?
2. (나)에서 선우 선생님은 준서의 이야기를 듣고 기특하다고 말했는데요. 선생님이 준서를 기특하게 여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3.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낸 준서에게 전할 응원의 말을 써 보세요.



독서 후 ④ 너의 여름이 되어줄게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여름이는 두 친구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짝사랑을 그만두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여름이는 여전히 준하를 잊지 못했다. 잊었다고 자신에게 ㉡세뇌해도 어디에서나 준하의 얼굴이 튀어나왔다.

(나) 하지만 준하는 여름이가 고백할 때마다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고 여자 친구를 사귄 처지가 못 된다는 말로 여름이의 마음을 ㉢완곡하게 거절했다. 마지막 말은 언제나 같았는데 '너도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였다.

(다) " 여름아, 북극해에 그린란드 상어가 살고 있다.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아서 150살이 되어야 겨우 짝짓기를 할 수 있대. 성체로 자라는 데는 무려 200년이 걸린다더라. 그 상어 사진을 보다가 내가 점점 그린란드 상어처럼 되어 가는 건 아닐까 싶었어. 살면서 내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었어. 엄마가 명령하거나 지시한 걸 따르면서 살았으니까. 어느 날부터 난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마지막 용기를 내서 널 만나러 간 거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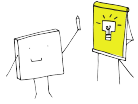
(라) 여름이는 준하에게 속삭였다. 북극해가 너무 차가워서 그린란드 상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차가운 곳에서는 뭐든 늦게 자라는 거니까, 마음이 차가운 사람 곁에서는 식물도 늦게 자랄 거라고 얘기해 줬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준하를 안심시켰다. 네 곁에는 내가 있으니까, 나는 여름이라서 그것도 한여름이라서 무엇이든 자라게 한다고.

1. 밑줄 친 ㉠~㉢의 단어를 넣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 ㉠
- ㉡
- ㉢

2. (다)에서 준하는 자신이 그린란드 상어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마지막으로 용기를 낸 준하를 안심시킨 여름이의 말은 대화로 표현해 보세요.



독서 후 ⑤ 손을 잡으면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선아야, 미안해. 오늘 MJ네에게 끌려갔었어. 우리랑 친한 유진이, 수아, 주하도 함께. MJ네들이 경고하더라. 너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아는 척도 하지 말래. 아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대. 내가 선아 너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알아. 학교에서는 당분간 우리 모른 척하자. 그냥 전화로만 연락하면 안 될까? 미안해. 나도 이러는 내가 너무 싫다.”

(나) “네가 그 애 우산 씌워 준 걸 MJ가 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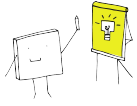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나에겐 우산이 있었고 그 애에겐 없었다. 차가운 비에 바람까지 불어 더 추웠던 날이었다. 하룻길에 비 맞고 벌벌 떨며 가는 모습이 너무 추워 보였다. 내 손이 마음보다 먼저 움직여 우산을 씌워 줬을 뿐이다. 그 애가 왕따 현자였다.

(다) 다음 날 운동화 끈을 더 단단히 묶고 현관문을 나섰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MJ 무리가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라) “선아야, 생각해 보니까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 그날 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거든. 차가운 비를 맞으며 난 혼자라고 생각했었어. 그때 네가 차가운 비를 막아 줬어. 네 덕분에 내 곁에도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1. 선아가 친구들에게 왕따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MJ 무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선아가 한 행동을 써 보세요.
3. 선아가 씌워준 우산은 현자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산으로 하여금 현지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우산을 씌워주기 전	우산을 씌워준 후



독서 후 ⑥ 자퇴하고 싶은 날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시우는 오전에 치른 수학 시험에서 완벽하게 패배자가 되었다. 시우가 망쳐 버린 수학 시험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문득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변함없이 리셋 되는 게임 속 세상이 부러웠다. 매번 새롭게 시작되는 게임처럼 망친 시험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시우는 이제껏 이렇게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한 적은 없었다. 재혁이는 오직 밥을 먹으러 학교에 온다고 매번 큰소리치지만, 시우는 학교에서 와서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쓸데없는 농담 따먹는 게 즐거웠다. 가끔은 선생님들과 주고받는 티격태격 실랑이도 괜찮았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둘 강력한 이유가 생겼다. 어떻게든 망쳐버린 시험의 흔적을 지워야 했다.

(다) “최동준, 도대체 언제까지 게임을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자퇴했냐? 그럼 가서 공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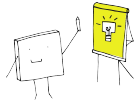
동준이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매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야?”

시우가 또다시 물었다. 자기가 그러던 자퇴 후의 모습은 이렇게 아니었다. 시우는 동준이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느껴졌다.

(라) 동준이는 멍하니 있는 시우를 두고 다시 피시방으로 들어갔다. 시우는 동준이의 축늘어진 뒷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불현듯 게임도 완벽히 리셋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이머의 이전 기록이 남아서 앞으로의 등급을 결정한다. 진정한 리셋은 없었다. 시우는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리셋에 흔들린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진정한 리셋은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찾아왔다.

1. 시우는 무엇 때문에 진지하게 자퇴를 고민했나요?
2. 나에게도 리셋시키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일인가요?
3. 동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시우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독서 후_사고력 쑥쑥 키우기

※ 『너의 여름이 되어줄게』의 인물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힘들어 합니다. 각각의 인물들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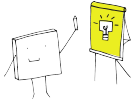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휘>

<준서>

<여름>

<선아>

<시우>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p> <p>예) 여름이 되어 준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진다.</p> <p>예) 누군가를 도와주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 같다.</p> <p>예) 여러 명의 글쓴이가 있는 것을 보니 단편 소설집 같다.</p> <p>2.</p> <p>1) 나를 지키는 것은 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격려하며 토닥여야 한다.</p> <p>2) (예시답안) 시험을 잘 보았지만 답안지를 밀려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속상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음 시험을 더 잘 보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망친 시험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나간 시험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한 덕에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p>				
3쪽	<p>1.</p> <p>휘는 엄마 몰래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백만 원어치나 구매했고 그 사실을 한달이 지난 뒤에 엄마가 알게 되었다.</p> <p>2.</p> <p>(예시답안) 어쩔 줄 모르고 답답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백만 원을 갚겠다고 엄마에게 큰소리를 쳤기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p>				
4쪽	<p>1.</p> <p>(예시답안) 돈을 많이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돈을 벌고 싶으면 열 받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돈을 번다는 것은 다양한 부조리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견디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2.</p> <table border="1" data-bbox="268 1691 1396 1953"> <thead> <tr> <th data-bbox="268 1691 833 1731">아르바이트 전</th> <th data-bbox="833 1691 1396 1731">아르바이트 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1731 833 1953"> <p>휘는 엄마가 오백 원짜리 하나 그냥 주는 법이 없고 매번 돈, 돈 하며 돈에 연연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p> </td> <td data-bbox="833 1731 1396 1953"> <p>엄마에게 돈이란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과 환경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엄마의 지독한 돈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p> </td> </tr> </tbody> </table>	아르바이트 전	아르바이트 후	<p>휘는 엄마가 오백 원짜리 하나 그냥 주는 법이 없고 매번 돈, 돈 하며 돈에 연연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p>	<p>엄마에게 돈이란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과 환경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엄마의 지독한 돈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p>
아르바이트 전	아르바이트 후				
<p>휘는 엄마가 오백 원짜리 하나 그냥 주는 법이 없고 매번 돈, 돈 하며 돈에 연연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p>	<p>엄마에게 돈이란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과 환경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고 엄마의 지독한 돈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p>				

5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331 1377 640"> <tr> <th data-bbox="268 331 826 371">㉠</th> <th data-bbox="826 331 1377 371">㉡</th> </tr> <tr> <td data-bbox="268 371 826 640">(예시답안) 나는 아무도 없는 잔잔한 수영장에 들어 가서 가만히 누워 보았다. 물 속에서 눈을 감고 힘을 빼고 있자니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페트병 같았다.</td> <td data-bbox="826 371 1377 640">(예시답안)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칠만하면 다시 내리고 그칠만하면 다시 내렸다. 습기가 가득한 공기에 머리카락이 눅눅해진 김처럼 처졌다. 내 기분도 눅눅하게 가라앉았다.</td> </tr> </table> <p>2. ㉢</p>	㉠	㉡	(예시답안) 나는 아무도 없는 잔잔한 수영장에 들어 가서 가만히 누워 보았다. 물 속에서 눈을 감고 힘을 빼고 있자니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페트병 같았다.	(예시답안)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칠만하면 다시 내리고 그칠만하면 다시 내렸다. 습기가 가득한 공기에 머리카락이 눅눅해진 김처럼 처졌다. 내 기분도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	㉡				
(예시답안) 나는 아무도 없는 잔잔한 수영장에 들어 가서 가만히 누워 보았다. 물 속에서 눈을 감고 힘을 빼고 있자니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페트병 같았다.	(예시답안) 하루종일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칠만하면 다시 내리고 그칠만하면 다시 내렸다. 습기가 가득한 공기에 머리카락이 눅눅해진 김처럼 처졌다. 내 기분도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6쪽	<p>1. 고모가 원하는 제빵사는 되기 싫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 없이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막막해서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찾아갔다.</p> <p>2. 준서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우 선생님은 기특하게 여겼다.</p> <p>3. (예시답안) 준서야! 꿈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치는 너를 응원해! 앞으로 할 일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너는 용기를 냈고 이미 한 발을 내디뎠으니 힘을 내. 뒷걸음치지 말고. 알겠지? 멋지게 성장하는 너의 모습 기대할게!</p>				
7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1328 1305 1503"> <tr> <td data-bbox="268 1328 1305 1503"> ⇨ (예시답안) ㉠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으나, 결국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 그녀는 이미 철저히 세뇌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었다. ㉢ 그는 원장의 호의를 완곡하게 사양했다. </td> </tr> </table> <p>2. 엄마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던 준하는 자신이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 결코 어른이 될 수 없을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체가 되기까지 무려 200년이 걸리는 그린란드 상어처럼 자신 또한 지금의 모습이라면 어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p> <p>3. (예시답안) “준하야, 네가 북극해의 그린란드 상어같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나는 한여름이니까. 내가 네 곁에 있으면서 따뜻한 온기로 뭐든 자라게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여름이 되어 줄게.”</p>	⇨ (예시답안) ㉠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으나, 결국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 그녀는 이미 철저히 세뇌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었다. ㉢ 그는 원장의 호의를 완곡하게 사양했다.			
⇨ (예시답안) ㉠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으나, 결국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 그녀는 이미 철저히 세뇌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었다. ㉢ 그는 원장의 호의를 완곡하게 사양했다.					

8쪽	<p>1. 비오는 날 우산 없이 걸어가던 왕따 현지에게 우산을 씌워줬다는 이유로 선아는 왕따가 되었다. 그 모습을 현지를 따돌린 민지(MJ)가 보았기 때문이다.</p> <p>2. 운동화 끈을 더 단단히 묶고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으며 아무리 MJ 무리가 불러도 쳐다 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p> <p>3.</p> <table border="1" data-bbox="268 582 1361 846"> <thead> <tr> <th data-bbox="268 582 813 622">우산을 씌워주기 전</th> <th data-bbox="813 582 1361 622">우산을 씌워준 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68 622 813 846">혼자라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td> <td data-bbox="813 622 1361 846">내 곁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td> </tr> </tbody> </table>	우산을 씌워주기 전	우산을 씌워준 후	혼자라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곁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우산을 씌워주기 전	우산을 씌워준 후				
혼자라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곁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다.				
9쪽	<p>1. 망친 수학 시험의 흔적을 깨끗하게 없앨 방법이 자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p> <p>2. (예시답안) 내가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이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하신 마지막 말인 줄 모르고 가볍게 넘겼던 순간을 리셋시키고 싶다. 그럴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 할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이다.</p> <p>3. 게임조차도 이전 기록 때문에 완전히 리셋되지 않는다는 것이 떠오르면서 자퇴는 걸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리셋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진정한 리셋은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p>				
10쪽	<p><휘> ⇨ (예시답안) 휘야, 처음에는 엄마 핸드폰으로 현실하는 내가 철딱서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일을 찾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하려는 모습은 기특하고 대견한 것 같아. 자기가 뱉은 말임에도 무책임하게 모든 수습을 부모님께 떠넘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을 해보면서 엄마의 입장도 공감하고 인정하는 모습 멋지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진심으로 엄마를 돕고 성실한 휘가 되길 응원해!</p> <p><준서> ⇨ (예시답안) 준서야! 나는 네가 정말 꼭 필요한 고민들을 하고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 사실 너처럼 꿈이 무엇인지,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비뚤어진 자리에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친구들 많지 않은 것 같거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준서, 정말 멋지다. 너의 내일이 기대돼! 파이팅 준서야!</p>				

<여름>

⇒ (예시답안) 여름야! 네가 준하에게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라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의 마지막 용기가 된다는 거 정말 낭만적이기도 하고 특별한 것 같아. 자신을 차가운 바닷속 그린란드 상어같다고 말한 준하지만 나는 너로 인해 준하가 추운 바닷속에서도 따뜻하고 포근해질거라고 믿어. 너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선아>

⇒ (예시답안) 선아야, 너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아. 친한 친구 마저 멀어지는 순간에도 서운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를 이해했잖아. 나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친구가 미웠을 것 같은데 너는 그런 친구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네가 가진 따뜻한 마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왕따가 될까 봐 두려워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애써 모른척 하는 일들이 많은데 너는 너무 용기 있고 씩씩했어. 정정당당한 정면돌파! 나도 그래야하는 순간이 오면 너를 기억할게. 친구를 사랑하고 깊이 생각하는 선아 모습 최고야!

<시우>

⇒ (예시답안) 시우야! 자신 있었던 시험을 망쳐서 얼마나 속상했어? 얼마나 속상하고 좌절 되었으면 자퇴까지 생각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 네가 정말 자퇴하기로 완전히 결정하면 어찌지,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네가 중심을 되찾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시우야, 무너지지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열심히 해서 돌이킬 기회는 반드시 올 거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보자. 응원할게.